

# “여름철 전기료 1만원대”...태양광이 만든 ‘냉방의 자유’

## 【폭염 속 삶의 현장】

〈3〉광주남구 신효천마을

64가구 각 3kW 태양광 설비 보급  
1년 전기세 6만원 남짓 부담 덜어  
에너지 자립률 90% 향해 순항  
폭염·기후위기 극복 모범사례 기대

“무더위요? 우리에게 오히려 든든한 에너지 공급원이죠.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은 전혀 없어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20일 오후 1시께 광주 남구 행암동 신효천마을. 최고기온이 31.1도에 달하면서 화덕처럼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골목 사이사이론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 주민들은 양산을 쓰거나 그늘을 찾아 움직였다. 반면, 마을 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더 없이 평온(?)한 상태였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는 물론이고 공기청정기까지 가동되고 있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TV를 시청하며 웃음꽃을 피워냈다.



광주 남구 행암동 신효천마을 64가구에는 가구당 3kW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었다. 이에 여름철 에어컨을 마음껏 가동해도 한달 전기료가 1만원대에 불과해 폭염 속에서도 시원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오른쪽은 한 주민에 청구된 7월 모바일 전기요금 고지서로 전기사용량 0kWh, 청구요금 5천390원이 표시돼 있다. /김애리 기자

주민들은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도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흥동(69)씨는 “1년 전기세를 모두 합쳐도 6만원 남짓”이라며 “냉장고 3대와 에어컨, 돌집대 등 온갖 가전제품을 마음껏 써도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최씨에게 청구된 전기세는 5천390원에 불과해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주민들은 “이 정도면 아껴 쓴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70대·여)씨는 “장마철부터 제습기와 에어컨을 늘 키고 있지만 전기세는 몇천원 정도”라며 “냉방기기를 종일 트는 덕에 마

을회관도 시원해 이웃들과 자주 모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냉방의 자유’가 가능한 건 이곳이 가정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에너지 자립’ 마을이어서다.

현재 신효천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지난 2022년 인근에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서면

[한국전력] 2025년 07월 전기요금 안내

고객번호 : [XXXXXXXXXX]

고객명 : 최흥동

사용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신효천 [XXXXXX]

---

청구년월 : 2025년 07월 (사용기간 : 2025년 06월 26일 ~ 2025년 07월 25일)

전기사용량 : 0kWh

청구요금 : 5,390원

납부기한 : 2025년 08월 20일

이곳으로 이주한 이들도. 이들을 위해 남구는 64가구 전 세대에 21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주택 1(만호 보급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 설비 덕에 전체 주민들이 연간 3천300만원의 전기세를 절감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신효천마을은 전국 최초의 에너지자립 마을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에도 선정돼 총 27억원 규모의 국·지방비·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남구는 모든 가구의 태양광 설비를 3kW급으로 교체했다.

현재 신효천마을은 64가구 태양광 발전(총 192kW)과 공용 태양광 발전(58.5kW),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소, 태양열 설비까지 갖춘 소규모 분산 전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세워 태양광 수익사업을 통해 매월 60여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마을 에너지 자립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마을 자립률은 73%이다.

남구 관계자는 “신효천 마을이 폭염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의’ 기각

오늘 광주지법선 손해 청구 선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의 도서에 대해 법원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을 확정했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지난 12일 지씨의 도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도서는 앞으로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지씨는 올해 1월24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도서가 출판·배포 금지 조치를 받아 이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

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어길 시 지씨는 재단에 1회당(위반 행위가 같은 일에 연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전국 도서관과 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은 지난달 31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이미 역사와 법, 수많은 증언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왜곡 행위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것으로 일반 법률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씨의 같은 도서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

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21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이뤄진다. /안재영·주성학 기자

### 순천시 금속 가공업체 대표

### 윤기던 기계에 깔려 숨져

순천 한 금속 가공업체에서 사장이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순천시 별량면 해룡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A(60대)씨가 크레인으로 옮기던 기계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기계에 깔린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전도된 기계를 차량에 싣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업체의 대표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순천=정기 기자

## ‘요양병원 환자 낙상 사망’ 의료진 2심도 무죄

법원 “목적→조치 외 예방 불가능”

광주 한 재활요양병원에서 낙상 사고로 숨진 환자와 관련, 당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광주 한 재활병원의 전직 의료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직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전 1~4시 사이 입원 환자 A(70대·여)씨가 침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동안 잠을 자거나 순찰을 돌지 않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파킨슨병 환자였고 침상에 낙상 주의 표지판이 부착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였으나,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서 근무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 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목격해 막지 못한 한 사고의 완전 예방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 “인사비·휴가비 증·”前공무원 2심서 감형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 희망자에게 인사비와 휴가비를 요구한 전직 여수시 공무원 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하고 선고유예는 유지했다.

2023년 8월 여수시청에서 도시경관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소속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 희망자 B씨에게 인사비와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